

勞 動 經 濟 論 集
 第25卷(1), 2002. 3, pp. 1~21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병 훈**

본 연구는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와 관련하여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서구의 선행연구들이 구분하는 간접·공식의 구직경로 범주에 각각 포괄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구직자의 개인속성 변수와 여타 영향요인들에 따라 상충되는 인과성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탐색의 활동패턴에 대해 일관된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구직자의 학력임을 밝히고 있다. 구직방법의 활용폭에 대해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유력인사 친척관계)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한편, 구직경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부친의 학력이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직업탐색, 구직경로/방법, 사회적 자원, 사회적 연결망

I. 머리말: 문제의 제기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였다. 경제

투고일: 2001년 11월 20일, 심사일: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02년 2월 6일

* 이 글은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으로서 초고의 개선·보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박준식 교수(한림대 사회학과)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을 밝혀 둔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bhlee@cau.ac.kr)

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말 이후 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던 완전고용의 신화는 허물어지고 1998~99년에 6%를 넘는 대량실업을 경험한 이래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비정규 고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노·사단체들과 학계 연구자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기제가 일정하게 해체되고 외부노동시장을 매개로 한 인력의 방출·유입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다(정이환·전병유, 2001). 그 결과, 우리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대기업·공공부문에 정착되어 온 '평생직장'의 고용관행이 사라지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잦은 직장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소위 '평생직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듯, 경제위기에 의해 강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동반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서 노동시장의 고용관행 역시 시장매개적인(market-mediated)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평생직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공급자들이 특정 직장에서의 장기적인 고용보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언제 있을지 모를 직장이동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제고·유지해야 하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과 불안정 취업자들의 규모가 급증하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유동성(labor mobility)이 크게 증대되는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구직자들에 의한 직업탐색은 단순히 단기적인 실업대책 차원의 지원대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향후 노동시장의 새로운 질서하에서 효과적이며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해 나기 위해 주요하게 논구되어야 할 정책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직자들의 직업확보(occupational attainment)는 노동시장에 있어 수요-공급의 균형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이들 구직자의 다양한 직업탐색(job search)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이, 구직자들의 직업탐색 활동방

1)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6.8%와 6.3%에 달하였던 실업률이 2000년의 급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4.1%로 낮아져 2001년 중에도 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하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2002년 상반기에 다시금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식과 그 성과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 의해 주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구직자들이 가구 내에 위치한 지위와 가구 차원의 경제적 자원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원 가능한 취업정보와 영향력 등의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 정도에 따라 이들의 직업탐색 방식 및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자들의 직업탐색 활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이동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려 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학의 관점에서 구직자들의 직업탐색 방식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을 점검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제II장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문헌들을 검토·정리하고, 제III장에는 연구모형과 분석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IV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자료에서 선별된 구직자들의 직업탐색 행위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연구 함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문헌 검토

구직자들의 직업탐색 활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동안 매우 일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의 기간에 노동력의 유동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평생직장' 시대의 노동시장 풍토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발생과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의 구직난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당면하여 최근에 학교-직장 이행기의 청년 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 및 자발적 이직자들에 의한 구직활동의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장원섭, 2001; 김동현·김상호, 2001; 방하남, 1998).

반면에,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직장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직업탐색은 경제학·사회학·경영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활용·검증하기 위해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이 네덜란드·독일·스페인 등의 유럽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De Graff & Flap, 1988; Flap & De Graff, 1986;

Wegener, 1991; Requena, 1991). 직업탐색에 대한 미국 경제학의 본격적인 연구는 Stigler(1962)에 의해 제시된 '순차적 정지모형(sequential stopping model)'에 기원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차례로 구직대상의 사용자들에 의한 임금제(wage offer)를 본인의 의증임금(reservation wage)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취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 같은 직업탐색모형은 이후 후속 실증분석을 통해 확대·심화되어 왔는데, 특히 구직활동비용, 실업보험제도의 영향, 구직방법의 선택과 이에 따른 구직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발전되었다(Kim, 1996). 그런데, 경제학에서의 직업탐색 연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자들을 자신의 한계효용(임금 또는 비임금적인 측면의)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한 노동시장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별화된 존재로서 전제하고 있다.²⁾

Granovetter는 그의 저서 『Getting a Job(1974)』을 통해 직업탐색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인 연구 시각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경제사회학의 새로운 접근관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는 경제행위자들이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밖에서 원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의식적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 구조 속에 배태되어(embedded)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의 분석에 기반하여 경제행위들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Granovetter, 1985). Granovetter(1974)에 따르면, 직업탐색이라는 노동시장 행위(labor market behavior) 역시 물사회적인 진공(vacuum)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위치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에 의해 그 목표 설정과 진행방식 및 과정 그리고 성과가 결정적으로 영향받게 된다.³⁾ 아울러, 그는 직업탐색(및 직장이동)을 위한 구직자들의 관련 정보 입수·활용이 사회-구조적이며 인구학적인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약한 사회적 연계(weak social tie)에 의해 보다 구직정보의 전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2)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는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구직자들에 대한 기업의 선발방식이 조직 성과(예: 종업원의 이직/결근율, 생산기여도, 직무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im, 1996).

3)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완전한 노동시장체제(perfect labor market system)하에서는 구직자는 중개자(contact person) 또는 중개기관(intermediary)을 경유치 않고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직업탐색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가정되듯이 구인자-구직자 간의 완전 정보공유에 기반한 이상적인 노동시장 체제가 현실세계에는 존재하기 힘든 만큼, 오히려 이들간의 정보 제약은 가지는 불완전 노동시장에서는 중개자(또는 중개기관)를 매개로 한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마련이다(Lin, 2001).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Granovetter, 1986; 1978).

직업탐색과 관련된 Granovetter의 사회연결망 연구는 이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또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이라는 이론적이며 조작적인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분석적인 논증이 더 한층 확대·발전되어진다. Bourdieu(1980)과 Lin(1981a; 1981b) 그리고 Coleman(1988)에 의해 이론적으로 주조된 '사회적 자본 또는 자원'은 경제행위자가 참여-관계하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집단으로부터 동원·활용 가능한 자원이라 정의될 수 있다(Lin, 2001). Lin(2001)에 따르면, 직업탐색과 같은 수단적 행위(instrumental action)를 위해 활용되는 사회적 자원의 주요 요소로는 ① 필요 정보(information)의 입수, ② 목적 실현을 위한 영향력(influence) 행사, ③ 사회적 신임장(social credentials)의 부여, ④ 행위자의 정체성(identity)과 사회적 인정(recognition)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구직활동은 기본적으로 구직자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예: 가족, 친척, 친구, 이전 직장동료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인 중개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회적 자본의 보유 정도에 따라 구직자들의 취업기회와 직업탐색 성과가 불균등적인 형태로 존재하거나 구현된다(Lin, 2001; Flap & De Graff, 1986).

이렇듯, 직장이동과 직업지위획득(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에 있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이 지니는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직업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구직자들에 의한 직업탐색 방법/경로의 선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수많은 실증분석이 진행되었다. 직업탐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분석된 주요 영향요인들로서는 개인적 속성변수(예: 성별, 학력, 연령, 인종 등)와 취업경력변수(최초/이전 또는 현재 직업의 직종·업종·경력 및 소득 등), 가구배경(family background)변수로서 부친의 직업위세와 학력, 그리고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 성격과 규모(size) 등을 열거할 수 있다(Granovetter, 1974; Campbell & Rosenfeld, 1985; Lin et al., 1981; Flap & De Graff, 1986; De Graff & Flap, 1988; Flap & De Graff, 1986; Beggs & Hurlbert, 1997; Podolny & Baron, 1997; Green et al., 1995; Kim, 1996). 또한, 직업탐색방법의 선택에 따른 구직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바, 특히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한 간접적인 구직방법을 통해 임금(또는 소득) 수준과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및 위세(prestige) 그리고 직무의 자율성 및 권위 등이 주요하게 분석되었다(Lin, 2001; Lin et al., 1981a; Campbell & Resenfeld, 1985; Marsden & Hulbert, 1988; Beggs &

Hurlbert, 1997; De Graff & Flap, 1988; Requena, 1991; Green et al., 1995; Kim, 1996). 간접적 직업탐색경로와 관련해서는 구직자가 사회연결망 속에 접하고 있는 위치와 사회연계의 강도(strength of social ties)⁴⁾와 더불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개인의 지위와 영향력 등이 분석되기도 하였다(Granovetter, 1974; Lin, 2001; Lai et al., 1998; Lin et al., 1981b; Marsden & Hurlbert, 1988; Beggs & Hurlbert, 1997). 덧붙여, Rees(1966)는 구직활동의 동기에 따라 직업탐색방법이 달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은 특정 취업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구직방법에 의존하는 반면, 고용기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식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사회학의 선행 연구문헌에 있어 아직 다양한 쟁점들이 남겨져 있기는 하나, 분명한 일치점은 구직자의 직업탐색이 노동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적 속성 등에 의해 영향받는 조건하에서 목적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라 집약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과 분석 변수

이 글에서는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당시 직업탐색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의한 직업탐색행위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직자의 직업탐색에 관한 종속변수는 구직방법 활용폭과 구직활동방식으로 구성된다. 우선, 구직방법 활용폭에 대해서는 구직자가 직업탐색을 위해 동원하는 방법/경로의 수로 조

4) Granovetter(1978)는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기존의 동류 집단가설(homophily 또는 like-me hypothesis)에 의해 전제되는 강한 사회연계(strong social ties)의 자원적 기능에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약한 사회연계(weak ties), 다시 말해 낮은 사회적 친밀도를 가진 집단과의 관계가 구직자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논증되고 있다(Granovetter, 1978). 이와는 달리 Lin(2001)은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는 각각 감성-표출적(expressive) 행위와 수단적 행위(instrumental)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직장이동과 관련해서 구직자의 위계적 지위/신분에 따라 강한 연계(상위 직업/위 보유자)와 약한 연계(하위 직업/위 보유자)가 선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작화하였다.⁵⁾ 직업탐색 활동방식은 Granovetter(1974) 등에 의한 구분에 따라 통상 간접적인 경로(indirect channel), 공식적 경로(formal channel), 그리고 직접 구직(direct job search)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하여 구직활동방식의 조작화 변수로서 분석대상의 구직자들이 활용한 직업탐색경로 중에서 간접 구직경로(예: 학교 스승, 친구·친지, 가족)와 공식 구직경로(공공·시설 직업안내소, 신문·TV 광고, 인터넷 전산망)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간접 구직경로 의존도'와 '공식 구직경로 의존도'를 산출하였다.⁶⁾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설명변수들로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① 개인속성변수, ② 희망취업변수, ③ 가구자원변수, ④ 사회자원변수를 포함시켰다. 우선 개인속성변수에는 구직자의 성별·연령·학력·현재 종사상 지위로 구성되는데, 특히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준거집단, reference group)로 구분하여 더미(dummy)변수로 처리·분석되었다. 희망취업변수로서 구성된 희망소득(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소득,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월 평균 사업소득)과 희망취업형태(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더미변수로 구분) 그리고 희망직종(직업분류표에 따른 100~300의 전문관리직종과 400인 이상의 여타 직종을 더미변수로 구분)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보다는 경제학자들에 의한 실증연구에서 주로 분석된 것이긴 하나, 이 같은 의증임금의 기대수준과 비임금적 측면의 기대고용 형태/직종은 구직자들의 직업탐색행위에 대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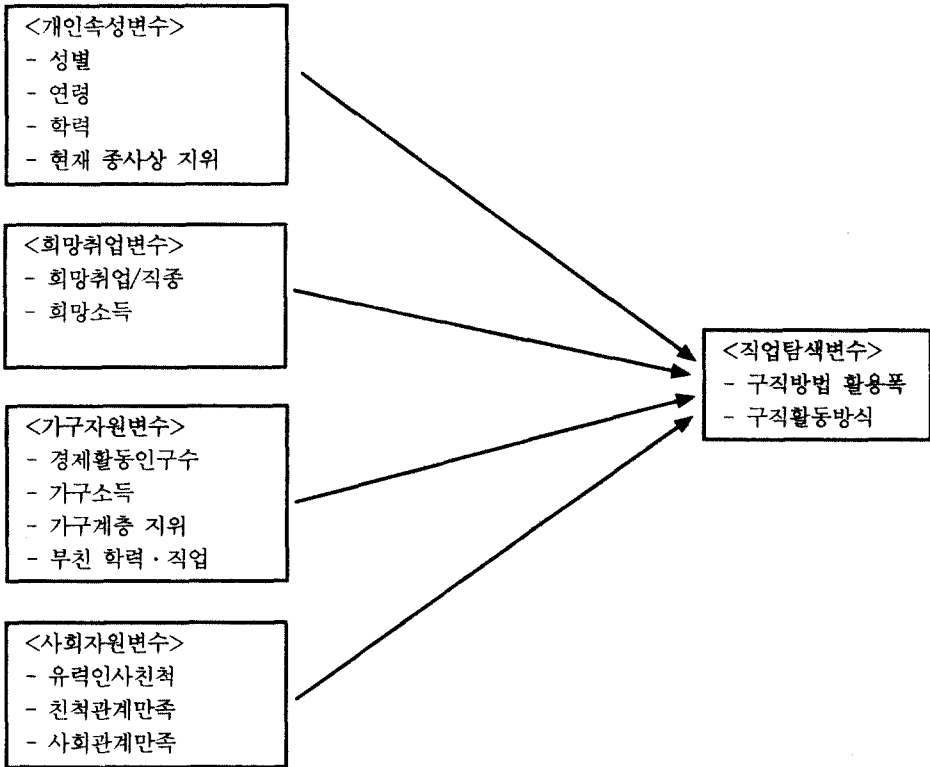
본 실증연구에서는 구직자가 본인의 직업탐색활동에 있어 활용할 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설명변수들로서 가구자원 변수집단과 사회자원 변수집단을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⁷⁾ 가

- 5) 3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설문지안에 9개 구직방법에 대한 복수 선택을 묻는 공통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374명의 구직자들에 의한 구직방법 선택수는 아래 표와 같이 분포하고 있다.

	1개 방법	2개 방법	3개 방법	4개 방법	5개 방법	6개 방법	합계
구직자 수	148 (39.6%)	138 (36.9%)	68 (18.2%)	12 (3.2%)	5 (2.3%)	3 (0.8%)	374

- 6) 구직 경로의 3개 범주화(간접·공식·직접)에 있어 구직방법의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는 제외시켰다.
- 7) Lin(2001)에 따르면, 직업탐색활동과 관련된 구직자의 사회적 자원은 귀속적 자원(absorbed resources)과 획득적 자원(acquired resource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태생적인 신분에 의해 주어지는 자원으로서 성별, 인종, 부모의 신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그림 1) 분석모형



가구자원 변수는 ①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의 수, ② 가구의 소득수준, ③ 가구의 사회계층적 지위, ④ 부친의 학력, ⑤ 부친의 취업유형으로 구성된다. 우선, 가구의 경제활동인구수⁸⁾는 취업·미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향변수로서 고려되어 포함시켰다. 가구의 소득수준(근로·금융·부동산 소득의 월평균 합계)과 계층적 지위는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상징적 자원으로 작용할

반면, 후자의 자원은 후천적인 성장 과정과 직업경력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학력과 친구관계 및 직장 동료관계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Lin(2001)의 구분을 본 연구모형에 적용할 경우, 가구자원과 친척 관련 자원은 귀속적 자원으로, 그리고 친구관계(사회만족변수)는 획득적 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수는 가구용 자료 중에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개인용 설문유형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수의 합계로 가공-처리되었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명변수로 분석하였다.⁹⁾ 부친의 학력과 직업은 선행 연구에 의해 구직자의 직업신분 성취(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분석된 가구배경자원(family background resource)의 변수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나, 다만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기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친의 직업위세(occupational prestige)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어 대신에 부친의 취업형태(임금·비임금근로자의 더미변수 처리)를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고
[개인속성변수]				
- 성별(더미)	374	0.60	0.49	남자=1, 여자=0
- 연령	374	36.12	11.78	
- 학력	374	11.73	3.45	해당 학력의 연수 산출
- 현재 종사상지위①: 임금근로자(더미)	374	0.15	0.36	미취업자=준거집단
- 현재 종사상지위②: 비임금근로자(더미)	374	0.07	0.25	
- 현재 종사상지위③: 미취업자(더미)	374	0.78	0.41	
[희망취업변수]				
- 희망 고용형태(더미)	374	0.82	0.38	임금=1, 비임금=0
- 희망 직종(더미)	370	0.26	0.44	전문/관리직=1, 여타 직종=0
- 희망 소득(로그값)	374	4.63	0.55	임금/비임금소득 자연대수
[가구자원변수]				
- 경제활동인구	374	3.12	1.23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의 수
- 가구소득(로그값)	374	4.20	1.62	근로·금융·부동산 소득 합계의 자연대수
- 가구계층 지위	374	1.86	0.76	가구의 경제지위(5점)
- 부친 학력	339	6.91	4.69	해당 학력의 연수 산출
- 부친 직업(더미)	326	0.35	0.48	임금=1, 비임금=0
[사회자원변수]				
- 유력인사 친척 유무(더미)	374	0.21	0.41	유력인사 친척 유=1, 무=0
- 유력인사 친척 친밀관계	373	0.70	1.78	유력인사 친밀점수의 합계
- 친척관계 만족	374	3.32	0.71	친척관계 만족도(5점)
- 사회관계 만족	373	3.33	0.68	친구/지인관계 만족도(5점)
[종속변수]				
- 구직방법 수	374	1.92	0.98	
- 간접 구직경로 의존도	374	38.02	36.41	간접 구직/전체 구직방법수(%)
- 공식 구직경로 의존도	374	39.55	36.37	공식 구직/전체 구직방법수(%)

9) Bourdieu(1983)은 사회 불평등의 확대재생산과 관련하여 지배계급이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 성취와 경제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논구하고 있다.

사회자원 변수집단은 ① 유력인사 친척 유무와 친밀도, ② 친척관계 만족도, ③ 사회친분관계 만족도로 구성하고 있다. 3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에는 새로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의 인사들에 대한 친척관계의 유무와 친밀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이 들 유력인사와의 친척관계 유무(전혀 없는 집단과 하나 이상의 보유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처리)와 친밀도를 두 개의 분석변수로 구분하여 조작화하였다.¹⁰⁾ 이들 두 개 변수의 구분은 유력인사라는 사회적 자원의 보유 여부와 연계강도(strength of ties)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고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추가로, 본 실증분석에는 구직자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친(인)척관계와 사회친분(친구·지인)관계의 만족도를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는데, 가설적으로 이들 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진 구직자일수록 본인의 직업탐색활동에 있어 친(인)척과 친구·지인이라는 사회적 자원(또는 연결망)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분석대상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예시하고 있다.

IV.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와 교차분석 결과

본 실증분석은 3차 한국노동패널 개인 공통자료에서 구직경로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374명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¹⁾ <표 2>는 분석대상의 구직자들에 대한 개인 속성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10) 3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에는 대학교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의사, 신문/방송 기자, 장성급 군인,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법조인과 같이 유력한 지위에 있는 인사와의 친척관계 유무와 친밀 정도(3점 척도)를 묻는 개인 공통의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1) 분석대상의 374명에는 현재의 취업자들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81명이 그대로 포함되고 있는 한편, 취업의사를 밝힌 551명의 미취업자들 중 구직경로를 밝히고 있는 293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아울러, 3차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 조사자 중 18명의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규모가 작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2> 구직활동자의 인적 속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취업자	미취업자	전 체
성 별	남성	58 (25.9)	166 (74.1)	224 (59.9)
	여성	23 (15.3)	127 (84.7)	150 (40.1)
연 령	15~19세	2 (14.3)	12 (85.7)	14 (3.7)
	20~29세	18 (16.1)	94 (83.9)	112 (29.9)
	30~39세	32 (28.1)	82 (71.9)	114 (30.5)
	40~49세	20 (26.7)	55 (73.3)	75 (20.1)
	50~59세	7 (17.9)	32 (82.1)	39 (10.4)
	60세 이상	2 (10.0)	18 (90.0)	20 (5.3)
학 력	무학·미취학	1 (16.7)	5 (83.3)	6 (1.6)
	초·중·고등	55 (22.9)	185 (77.1)	240 (64.2)
	4년·전문대학	22 (18.5)	97 (81.5)	119 (31.8)
	대학원	3 (33.3)	6 (66.7)	9 (2.4)
전 체		81 (100)	293 (100)	374 (100)

<표 3>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구직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구직방법 수의 평균은 1.92개이며, 구직경로의 분포에 있어서는 친구·친지의 소개(54%), 신문·TV의 구인광고(49.2%), 구직 장소의 직접 방문(3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1·2차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방하남 외, 2001)와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직방법의 수는 개인 속성에 있어 남성, 고학력, 미취업자인 구직자들이 여성, 저학력, 취업자의 구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령 범주에 있어서는 20~29세의 청년층 구직자들이 가장 많은 구직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개인 속성별 범주에 의거하여 구직방법수에 대한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학력($p < .01$)과 현재 취업 여부($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직자의 개인 속성별로 구직경로의 상대적 비중/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구직자가 여성 구직자에 비교하여 간접 구직방법과 직접 구직방법에 더욱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공식 구직방법 중 신문·TV 광고와 인터넷·전산망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 구직자가 남성 구직자보다 높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범주와 관련하여 15~29세의 청년층 구직자들이 학교·직장의 이행기에 있는 만큼 학교 스승을 통한 (간접) 구직경로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50세 이상의 노년층 구직자는 직접 구직방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력 수준과 관련해서는 고학력의 구직자일수록

학교 관련 구직경로와 공공 중개기관을 통한 직업탐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저학력의 구직자들에 의해서는 친구·친지의 소개를 통한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무학/미취학의 구직자의 경우 직접 구직과 기타 방법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현재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할 경우에는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친구·친지의 소개와 신문·TV 광고를 통한 구직방법의 활용비중이 높았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와 비교하여 가족 소개 및 인터넷·전산망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간접 또는 공식의 직업탐색방법으로 범주화되는 세부적인 구직경로들이 구직자의 개인별 속성에 따라 상이한 분포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구직활동자의 직업탐색방법 분포

(단위: 명; %)

	전체	구직 방법수 (평균)	간접 구직			공식 구직				직접 구직	기타	
			학교/학 원/스승 소개	친구/ 친지 소개	가족을 통해	공공 직업 안내소	사실 직업 안내소	신문/ TV 광고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구직 장소 방문
성별												
남성	224	1.99	8.9	56.7	12.1	11.2	4.0	45.5	13.8	41.5	5.4	
여성	150	1.82	8.7	50.0	9.3	6.0	3.3	54.7	16.7	30.0	3.3	
연령												
15~19세	14	1.43	21.4	35.7	0.0	0.0	0.0	50.0	0.0	35.7	0.0	
20~29세	112	2.21	16.1	52.7	13.4	8.9	1.8	58.0	33.0	36.6	0.0	
30~39세	114	1.89	5.3	58.8	14.0	5.3	2.6	57.0	12.3	28.1	5.3	
40~49세	75	1.68	6.7	52.0	10.7	10.7	5.3	30.7	5.3	38.7	8.0	
50~59세	39	1.95	2.6	51.3	5.1	23.1	12.8	48.7	2.6	41.0	7.7	
60세 이상	20	1.75	0.0	60.0	0.0	5.0	0.0	25.0	0.0	75.0	10.0	
학력												
무학·미취학	6	1.67	0.0	66.7	0.0	0.0	0.0	0.0	0.0	66.7	33.3	
초·중·고등	240	1.80	3.3	57.1	11.3	8.3	3.3	50.0	4.6	37.9	3.8	
2/4년 대학	119	2.16	17.6	47.9	10.9	10.9	5.0	48.7	37.0	32.8	5.0	
대학원	9	2.33	44.4	44.4	11.1	11.1	0.0	66.7	11.1	44.4	0.0	
종사지위												
임금근로자	56	1.64	8.9	48.2	10.7	8.9	1.8	37.5	17.9	26.8	3.6	
비임금근로자	25	1.56	4.0	44.0	16.0	0.0	4.0	20.0	20.0	36.0	12.0	
미취업자	293	2.01	9.2	56.0	10.6	9.9	4.1	53.9	14.0	38.9	4.1	
전체	374	1.92	8.8	54.0	11.0	9.1	3.7	49.2	15.0	36.9	4.5	

2. 직업탐색의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 패턴에 대한 영향요인의 OLS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예시하고 있다. 우선, 구직방법의 수와 관련해서는 구직자의 학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자들이 활용하는 직업탐색경로의 폭이 보다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학력 구직자의 경우 저학력자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직업탐색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력인사의 친척관계 자원변수들(보유 유무와 친밀도)은 구직방법의 수에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친척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 친척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구직자일수록 직업탐색활동의 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력인사 친척의 존재와 친밀관계가 구직자들의 직업탐색활동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이들 구직자의 직업탐색활동 폭을 줄여주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덧붙여, 현재의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구직자들인 경우에는 직업탐색방법의 수에 대해 유의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미취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예: 자영업자)에 비해 이들의 구직활동이 현 직장생활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밖에 남성, 고연령, 임금근로자 취업, 전문/관리직 및 고임금/소득기대, 가구내 경제활동인구 및 가구소득, 부친의 학력/직업이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가구계층지위, 친척관계/사회관계 만족도는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이들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인 유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의 직업탐색방법과 관련하여 간접 구직과 공식 구직의 경로 범주로 나누어 그 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는 학력과 희망소득 그리고 부친의 학력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한 3개 변수는 간접 경로와 공식 경로에 대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구직자가 저학력이거나 희망소득이 높거나 또는 이들의 부친 학력이 높을수록 간접적인 구직방법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구직경로의 활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구직경로 의존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령과 희망고용형태가 각각 음(-)과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또는 임금근로자로서 취업되기를 희망할수록 구직자의 공식

〈표 4〉 직업탐색의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직방법 수		구직 경로			
	(1)	(2)	간접비율(1)	간접비율(2)	공식비율(1)	공식비율(2)
성별(더미)	.068	.076	-.014	-.016	-.073	-.069
연령	.001	.001	-.054	-.053	-.149**	-.149**
학력	.194**	.030**	-.246***	-.243***	.249***	.241***
임금근로자(더미)	-.102*	-.100	-.017	-.017	.025	.026
비임금근로자(더미)	-.091	-.098	-.027	-.026	.042	.038
희망고용형태(더미)	.086	.083	.007	.008	.129*	.127*
희망직종(더미)	.020	.026	-.100	-.101	.091	.095
희망소득(로그)	.003	-.005	.159*	.160*	-.149*	-.153*
경제활동인구	.037	.044	.057	.056	-.022	-.019
가구소득(로그)	.029	.024	.023	.023	-.034	-.037
가구계층지위	-.057	-.055	.008	.008	-.011	-.010
부친 학력	.041	.039	.280***	.280***	-.225***	-.226***
부친 직업(더미)	.002	.006	-.042	-.043	-.056	-.054
유력인사 친척유무(더미)	-.150**		.026		-.074	
유력인사 친척 친밀도		-.105*		.017		-.052
친척관계 만족도	-.048	-.054	.124	.126	-.057	-.060
사회관계 만족도	-.110	-.117	-.106	-.105	.101	.097
F (sig)	2.742***	2.518***	1.854**	1.846**	3.393***	3.334***
R ²	.132	.123	.093	.093	.159	.156
Adj. R ²	.084	.074	.043	.043	.112	.109
사례수	305	305	305	305	305	305

주: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임. * p<.1, ** p<.05, *** p<.01

적인 구직방법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덧붙여, 가구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변수들 대부분은 간접 구직과 공식 구직의 의존도에 예상대로 각각 양(+)과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통계적 유의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흥미로운 점으로서 통계적 유의도는 낮지만 사회관계 만족도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이들 두 개 구직경로의 범주에 대해 상반된 방향의 결과(간접 -, 공식 +)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접·공식 직업탐색경로로 구분·범주화함에 있어 포괄되는 세부 구직방법들간에 상충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8개의 구직방법 활용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Logit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구직경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를 간추려 정리해 보면, 우선 학교·학원·스승의 추천이나 소개에 대해서는 학력과 부친 학력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친지의 소개에 대해 많은 설명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요

〈표 5〉 직업탐색방법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간접 구직경로			공식 구직경로				직접 구직
	학교/학원 스승 소개	친구/친지 소개	가족을 통해	공공직업 안내소	사실직업 안내소	신문/TV 구인광고	인터넷/ 전산망	
성별(더미)	-.137	.115	-.101	.583	1.070	-.007	-.480	.685**
연령	-.042	-.009	-.035	.035	.059*	-.031**	-.090***	.025*
학력	.244*	-.111**	.062	.259***	.256*	.137**	.401***	.005
임금근로자(더미)	-.115	-.683*	-.150	-.724	-7.174	-.021	.073	-.226
비임금근로자(더미)	-.630	-.799	-.719	-6.278	1.776	-.236	.573	-.376
희망고용형태(더미)	-.997	.894**	-.843	.252	8.591	.630	.308	.445
희망직종(더미)	.656	-.880***	-.453	.807	-.006	-.427	.838*	.146
희망소득(로그)	.579	.723**	.014	-.530	-1.611*	-.825**	.671	-.253
경제활동인구	.257	-.003	-.059	.132	.417	-.029	-.029	.013
가구소득(로그)	.239	.000	-.111	.104	.241	-.044	.029	.046
가구계층지위	.145	-.229	.501*	-.457	.635	-.139	.115	-.241
부친 학력	.154**	.108***	.003	-.095	-.097	-.062*	-.032	-.022
부친 직업(더미)	-.213	-.094	-.255	-.076	-.474	.068	-.764*	.204
유력인사 친척자원	-.551	-.072	-1.438**	-.749	.835	-1.269***	.368	.012
친척관계 만족도	-.112	.447*	-.033	.524	-.345	-.376	-.172	-.309
사회관계 만족도	-.582	-.566**	-.406	-.556	-.646	.304	.134	-.150
-2 Log-L	145.3	380.9	200.4	155.4	70.7	366.3	187.9	369.0
사례수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주: * p<.1, ** p<.05, *** p<.01

인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학교 등의 소개와는 달리 학력이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편 부친의 학력은 동일하게 양(+의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 구직경로의 활용도는 미취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또는 희망취업조건으로서 임금근로자, 비전문/관리직종, 고임금/소득을 기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자원변수와 관련하여 친척관계 만족도(+)와 사회관계 만족도(-)가 각각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친구·친지의 소개를 통한 구직경로에 있어 친척관계가 강한 연계(strong ties)로서, 그리고 사회 친구·지인과의 관계가 약한 연계(weak ties)로서 보다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탐색적인 추정을 제기할 수 있다.

가족을 통한 구직경로에 대해서는 가구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력인사 친척관련 사회자원은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자의 경우는 유력인사의 친척을 가진 구직자일수록 가족보다 이들 친척을 통한 직업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공식적 직업탐색방식으로서 공공 직업안내소와 사실 직업안내소의 구직경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학력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

설 직업안내소의 활용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희망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케 된다. 신문·TV의 구인광고를 통한 직업탐색경로에 대해서는 저연령·고학력·낮은 희망소득의 구직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친의 학력과 유력인사의 친척자원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자의 두 개 변수의 인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친의 학력이 낮거나 유력인사의 친척자원이 적을수록 신문·TV 광고를 통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산망을 통한 구직경로는 신문·TV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연령·고학력의 구직자에 의해 의존되고 있는 한편, 전문/관리 직종을 희망하거나 부친의 직업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더욱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구직방법은 구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구직자에 의해 유의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후자의 분석 결과(남성 > 여성)는 남성 구직자들이 여성 구직자들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 구직경로의 선호 및 유리한 취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미국 중심의 선행연구(예: Campbell, & Rosenfeld 1985; Beggs & Hurlbert, 1997; Podolny & Baron, 1997)와 매우 대조적인 내용으로 특기할 만하다.

V. 맺음말: 연구 함의와 추후 과제

구직자의 직업탐색활동 패턴과 관련하여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게 되는 몇 가지 연구 함의를 정리하면, 우선 서구의 선행연구들이 직업탐색경로의 주요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간접·공식의 구직방법에 각각 포괄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구직자의 개인속성 변수와 여타 영향요인들에 따라 상충되는 인과성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와 관련하여 이를테면, 간접 구직경로로서 친구·친지의 소개와 학교·학원·스승의 소개는 여러 설명변수들에 의해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식 구직경로에 있어서도 공공·사설 직업안내소와 신문·TV 광고가 유사하게 상충적인 분석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실증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들에 의한 직업탐색경로의 범주화(간접·공식·직접)에 대해 구체적인 구직방법의 성격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로,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 패턴에 대해 학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학력이 구직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조작적 지표(operationalized indicator)라는 점에서 당연스런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정도/수준을 결정하는 학력 수준이 구직자의 구직활동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직경로의 활용폭(구직방법 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유력인사 친척관계)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구직방법의 수와 관련된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 패턴에 대해 사회적 자원이 주요하게(음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탐색적 가설을 새로이 설정하게 된다.

넷째로, 구직경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의해서는 선행연구들(Flap & De Graff, 1986; De Graff & Flap, 1988)에 의해 검증된 바와 같이 부친의 학력이 구직자의 직업탐색활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부친의 학력과 더불어 부친의 직업위세가 역시 주요 영향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실증연구에 있어 한국노동패널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리변수로 포함된 부친의 취업형태는 구직자의 직업탐색방식을 규명함에 있어 별로 적절치 못한 설명변수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검토된 가구자원의 변수들(특히 가구내 경제활동인구와 가구소득)은 구직자의 직업탐색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타의 설명변수들의 경우에도 특정 구직경로(예: 성별- 직접 구직, 연령- 공식 구직, 희망취업 조건과 친척·사회관계 만족도- 친구·친지 소개 등)에 제한되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자의 이 같은 세부 집단들이 왜 특정 직업탐색방법을 선호 또는 회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서 깊이 있는 분석이 요망된다.

노동시장을 통한 직장이동이 증대되는 현실적 추세를 고려할 때, 이후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구직활동(또는 직장이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결망 및 활용자원의 특성과 중개자(contact person)의 사회적 위세와 지원방식 그리고 특정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성과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논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탐색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작용방식(예: strong ties 또는 weak ties)과 발현 효과(예: social capital의 긍정적 측면과 social liability의 부정적 측

면) 등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추가적인 노동패널 조사에 있어 해당 경험적 자료의 확보·축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동현·김상호. 「직업탐색과 자발적 이직」. 200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방하남·안주엽·장지연·호정화·김현경·김우영.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II): 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도 자료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방하남. 「실직 근로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미발간보고서), 1998.
- 장원섭.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I·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정이환·전병유. 「1990년대 한국노동시장의 변화」. 2001년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정책보도자료, 2001.
- Beggs, John, and Hurlbert, Jeanne. "The Social Context of Men's and Women's Job Search Ties: Membership in Voluntary Organizations, Social Resources, and Job Search Outcomes." *Sociological Perspectives* 40 (4) (1997): 601-622.
- Bourdieu, Pierre.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 (1980): 2-3.
- Campbell, Karen, and Rosenfeld, Rachel. "Job Search and Job Mobility: Sex and Race Differenc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3 (1985): 147-174.
-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Supplement): 95-120.
- De Graff, Nan Dirk, and Flap, Hendrik Derk.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 Social Resources as an Explanation of Occupational Status and Income in West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7 (2) (1988): 452-472.
- Flap, Hendrik Derk, and De Graff, Nan Dirk. "Social Capital and Attained Occupational Status." *Netherlands Journal of Sociology* 22 (1986): 145-161.
- Granovetter, Mark. "Labor Mobility, Internal Markets, and Job Matching: a Comparison of the Sociological and Economical Approach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5 (1986): 3-39.
- _____.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3) (1985): 481-510.
- _____.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6) (1978): 1360-1380.
- _____.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racts and Care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Green, Gary, Tigges, Leann, and Browne, Irene. "Social Resources, Job Search, and Poverty in Atlanta." *Research in Community Sociology* 5 (1995): 161-182.
- Kim, Jong-In. "Impact of Job Search Method and Effort on Search Outcomes." 『노동사관계연구』 7권 (1996): 241-263.
- Lai, Gina, Lin, Nan, and Leung, Shu-Yin.. "Network Resources, Contact Resources, and Status Attainment." *Social Networks* 20 (1998): 159-178.
- Lin, Na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Social Networks and Social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1999): 467-487.
- Lin, Nan, Vaughn, John, and Ensel, Walter. "Social Resources and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Social Forces* 59 (4) (1981): 1163-1181. (a)
- Lin, Nan, Ensel, Walter, and Vaughn, John.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1981): 393-405. (b)
- Marsden, Peter, and Hulbert, Jeanne.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 (4) (1988): 1038-1059.
- Podolny, Joel, and Baron, James.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Journal* 62 (1997): 673-693.
- Rees, Albert. "Information Networks in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56 (2) (1966): 559-566.
- Requena, Felix. "Social Resources and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in Spain: a Cross-national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2 (1991): 233-242.
- Stigler, George.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62): 94-110.
- Wegener, Bernd. "Job Mobility and Social Ties: Social Resources, Prior Job, and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1991): 60-71.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Factors Affecting Job Search Behavior

Byoung-Hoon Lee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of job search behaviors by using the 3r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first finding of the study is that specific job search methods, respectively categorized as the indirect and the formal pattern, show the contrasting consequences of causality, as given job searchers' personal attributes and other social factors. Secondly, this analysis confirms that job searchers' education leve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ir behavioral patterns in a consistent manner. Moreover, it is evident in this exploratory study that job searchers' social network (particularly whether to have close ties with relatives of high social rank) is a statistically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he extent of job search methods in use, while their fathers' education level also significantly affects the choice of job search patterns.